

9월 1회 주사로 약물중독 치료한다 인벤티지랩, 정부 글로벌 팁스 선정

IVL3004, 글로벌 후기임상 진입
독자 플랫폼 적용, 우수성 확인
향후 파트너십·기술이전 추진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임상 및 사업화 단계까지 K바이오 전 주기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자사의 미세유체 기반 장기지속형 약물중독 치료제 'IVL3004 (날트렉손)' 개발 과제가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글로벌 TIPS(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정책지정형 글로벌 팁스는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헬스 기업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투자와 글로벌 사업화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2026년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단 1개 과제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최대 4년간 6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받아 글로벌 후기 임상과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IVL3004' 개발은 글로벌 후기 임상 단계에 진입한다. 인벤티지랩은 2020년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R&D를 통해 IVL3004 제형 및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글로벌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성과를 축적해 왔다.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 기술 개발부터 글로벌 임상, 사업화 단계까지 연구개발을 확장한 대표 사례다.

IVL3004는 월 1회 장기지속형 약물중독 치료제다. 인벤티지랩의 독자 미세유체 기반 IVL-DrugFluidic 플랫폼을 적용했고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우수한 약동학적 특성과 내약성을 입증했다. 기존 상용화 제품 대비 약 20% 적은 약물 용량으로도 4주간 유효 치료 혈중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사부위 반응(ISR)의 지속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확인했다.

인벤티지랩은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제 협의를 거쳐 글로벌 임상 2상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제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링 및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내 허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

화 기반을 동시에 다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벤티지랩은 미세유체 플랫폼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급성장하는 글로벌 보건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개선해 환자의 복약준응도와 치료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약물중독 치료의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사기관 에스앤에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글로벌 마약중독 치료제 시장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37억 달러(한화 약 5조원)에 달하는 규모를 갖추고 오는 2032년까지 연평균 10.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마약중독 치료용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상업성이 검증된 제품이지만,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후속 개발이 쉽지 않은 분야”라며 “인벤티지랩은 미세유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의 한계인 제품력과 경제성을 개선한 개량신약을 글로벌 임상 단계까지 개발한 만큼, 이번 글로벌 팁스를 통해 글로벌 후기 임상과 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새로, 리뉴얼·마케팅으로 성장세 지속

롯데칠성음료 제로 슈거 소주 '새로'
과즙 라인업 확장, 전년비 27% 성장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대표 소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9월 첫선을 보인 '새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로, 증류식 소주를 첨가하고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 병, 7개월 만에 1억 병을 돌파했으며, 2025년 말 기준 누적 판매량 8억 병을 기록했다. 또한 '새로 살구', '새로 다래', '새로 오미자' 등 과즙 라인업을 확장하며 2025년 말 전년 대비 약 27% 성장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새로'는 올해 1월 말, 출시 후 첫 번째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며 한 차원 더 진화했다. 제로 슈거 소주라는 본질적 콘셉트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보리쌀증류주를 100% 국산 쌀증류주로 전면 교체해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경쟁 브랜드와의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아미노산 5종(BCAA 및 알라닌, 아르기닌)을 새롭게 첨가해 소주 맛의 완성도와 밸런스를 높였다. 패키지 디자인 역시 병뚜껑 엠블럼에 고유인민트색을 더하고, 라벨 속 구미호의 모습을 가볍게 뒤는 역동적이고 신묘한 자세로 변경해 가독성과 시각적 매력을 동시에 잡았다.



새로 플레이버 3종.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는 리뉴얼 출시에 맞춰 3월 성수동에서 방탈출 콘셉트의 팝업스토어 '새로중앙박물관'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앞서 운영한 '새로도원' 팝업스토어와 '새로도원 구슬 식기'는 '2026 iF 디자인 어워드'와 '2026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수상했다. '새로 살구'와 '새로 다래' 패키지 역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

구미호 캐릭터 '새로구미'를 활용한 마케팅도 이어졌다. '대한민국광고대상' 3관왕 및 '스파익스 아시아 2025' 동상을 수상하는 등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인정받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소주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가 제로 슈거 소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주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바이오팜, 2분기 영업이익 971억... 57% ↑

(전년비)

일회성 호재 착시 견어낸 성과 평가
美서 엑스코프리 매출 성장세 영향
안정적 이익창출, 후속 연구 속도

국산 신약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사진)'의 미국 매출 폭발을 바탕으로 SK바이오팜이 글로벌 성장 보폭을 크게 넓혔다. 엑스코프리는 독자 상업화 모델을 확보한 모습이다.

SK바이오팜은 2026년 2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은 2474억원, 영업이익은 971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3%, 영업이익은 56.9% 늘었다. 전분기 대비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5%, 8.1% 증가하며 일회성 용역수익이 반영된 분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분기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SK바이오팜은 제약·바이오 업계 특유의 일회성 호재 착시를 견어내고 거둔 성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분기 유입됐던



마일스톤 매출이 소멸하며 기타 매출이 감소하고 광고 및 R&D 투자로 판매관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73억원 커졌다.

이러한 호실적은 엑스코프리 성장세가 뒷받침됐다. 매년 연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추가로 늘어나는 매출 순증가액으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연간 미국 매출은 출시 첫해인 2020년 1020만 달러에서 2021년 6840만 달러(+5810만 달러, 이하 전년 대비), 2022년 1억 3090만 달러(+6260만 달러), 2023년 2억 7400만 달러(+7650만 달러) 수준이다.

최근 3개 연도에는 연간 순증가액폭을 1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24년 3억 2160만 달러(+1억 1420만 달러), 2025년 4억 4320만 달러(+1억 2160만 달러)를

경신했다.

이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은 224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5%, 전년 동기 대비 45.6% 급증했다. 상반기 누적 미국 매출만 4221억원에 달한다. 처방 지표 역시 2분기 미국 내 총 처방 수(TRx)가 약 14만 3000건으로 전분기 대비 8.4% 늘었고, 6월 월간 처방 수는 4만 9155건으로 역대 최대치다.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를 통해 창출한 안정적인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후속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추신경계(CNS) 저분자 신약, 방사성의약품 치료제(RPT), 표적단백질분해(TPD)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엑스코프리의 경우에는 제형 확대(현탁액 NDA 제출 완료) 및 적응증 확대(소아 및 PGTC 연내 sNDA 제출 예정)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영토 확장에 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현대백, 역대 최대 매출 6438억 기록

(2분기)

외국인 고객 매출 큰 폭 늘어

현대백화점이 명품과 패션을 중심으로 한 판매 증가와 외국인 고객 유입 확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백화점 부문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점은 흑자를 이어갔지만, 지누스의 부진으로 연결 기준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

5일 현대백화점은 공시를 통해 백화점 부문의 2분기 순매출이 6438억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고 밝혔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1101억원으로 58.6% 늘었다.

상반기 순매출은 1조 27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460억원으로 47.7% 증가했다.

실적 개선은 명품·위치·주얼리·패션·리빙 등 주요 상품군의 판매 호조와 외국인 고객 증가가 이끌었다. 방한 관광객 증가

와 K콘텐츠 확산에 따라 해외 명품뿐 아니라 국내 패션·뷰티 브랜드에 대한 외국인 소비도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주요 점포의 외국인 매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더현대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무역센터점은 131% 증가했으며, 두 점포 모두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20% 수준까지 높아졌다. 더현대 서울은 중국·일본·미국 관광객 중심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카자흐스탄 등으로 방문객 국적이 다양해지며 현재 180여 개국 관광객이 찾는 쇼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百貨, AI 활용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강화

생성형 AI 검색 최적화 마케팅 추진

롯데백화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마케팅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여행 정보 탐색 방식이 포털 검색에서 생성형 AI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여행 준비부터 방문, 쇼핑까지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여행시장 조사기관 포커스라이트(Phocuswright)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여행객의 56%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한 차례 이상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Z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72%에 달했다.

롯데백화점은 여행 준비 단계에서 생

성형 AI가 롯데백화점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생성형 AI 검색 최적화)' 마케팅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여행이나 쇼핑을 추천할 때 롯데백화점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AI 친화적으로 최적화하는 작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롯데벤처스가 운영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유니콘밸리'를 통해 올해 신설된 '디테일 AI 솔루션 T/F팀'과 협업해 진행한다. 이 팀은 브랜드 정보를 AI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체 솔루션 '골든노트 인덱스(GoldenNote Index)'를 개발했다.

/김서현 기자

노브랜드 버거, 다점포 가맹점주 확대

전체 매장 중 1곳, 동일 점주 운영

신세계푸드의 버거 프랜차이즈 노브랜드 버거에서 2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다점포 가맹점주가 꾸준히 늘고 있다.

5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개 이상 노브랜드 버거 매장을 운영하는 다점포 가맹점주 소속 매장은 총 42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보다 133% 증가한 수치다. 전체 매장 가운데 다점포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에서 15%로 확대됐다. 현재는 전체 매장 7곳 중 1곳을 동일 가맹점주가 운영하고 있다.

다점포 가맹점주의 평균 운영 매장 수는 2.6개다.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한 가맹점주는 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기존 가맹점주가 추가 운영 중인 노브랜드 버거 이마트 해운대점.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는 기존 가맹점주들이 실제 매장 운영을 통해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인한 뒤 추가 출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도입한 소자본 창업 모델인 '콤팩트 매장'이 다점포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신원선 기자